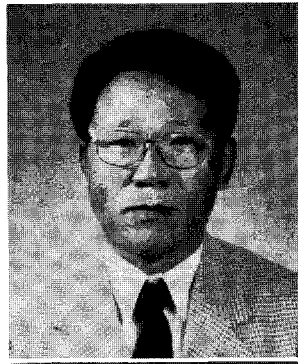


포피염 대책과 안전마취 요령

사슴의 건강검진과 중간결과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인해 세계의 축산업이 휘둘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쇠고기의 수요가 격감하고 유럽, 중동, 몽골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F.M.D)도 우리의 오금을 저리게 하고 있다. 캐나다

에서의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발생으로 캐나다산 녹용 수입이 금지되어 국산녹용이 더 팔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내국민의 사슴산물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녹용, 녹혈, 녹증탕의 판매감소로 연결될 수도 있다. 반면 일부는 국산녹용의 효과적인 홍보로 인해 사슴산물의 판매가 증가되었다는 이도 있다.

낙각이 시작된 각 농가에서는 녹용채취 일자를 계산, 고객에게 올해 생산된 녹용, 녹혈을 구매하여 달라는 연락을 취하곤 한다. 그러면 상당수의 고객은 “당신 사슴의 녹용이나 녹혈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유 일 준 원장
유일사슴전문동물병원

가?”를 질의한다고 한다. 물론 대답은 “괜찮다”고 하지만 소비자의 의심의 눈초리는 농장주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하자 농가에서는 사슴의 피와 분변을 채취하여 검사를 해주

고 이상이 없다면 건강(청정)진단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구가 제법 있다. 검사된 개체가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처방과 조치를 취한 후 재검하여 청정화 되었을 때 건강(청정)진단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것이 요지였다.

농가의 이러한 요구가 있기 전부터 필자의 생각은 만약을 대비한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터였다. 이에 필자가 채혈과 채변을 하고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과 네오딘(주)이 혈액 분석과 기생충 감염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으며 각 지역의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혈액 감염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즉 혈액내의 병원성 세균이나 원충, 기생충 등을 검사하기로 하고 각종자료와 소모자재를 준비한 후 채혈, 채변 등 검사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검사된 사슴에서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4월 중에 '건강(칭정)진단서'가 발급될 것이다. 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양록농가는 고객에게 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양록산물 판매증대에 기여되기를 필자는 고대하고 있다.

심한 포피염은 호르몬 사용하며 수술 병행

낙각은 대체로 나이가 많은 개체가 먼저 되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종족으로 사용했던 개체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개체는 낙각이 지연되기 일쑤이고 각관에 염증이 있을 경우 녹용이 자라 올라와도 낙각이 안 되는 것도 있다.

한쪽이 낙각된 후 다른 한쪽도 2일 이내에 낙각되면 정상이라 하겠으나 낙각일자가 5일 이상 지연되면 인위적으로 낙각을 시켜 주어야 한다. 낙각이 지연된 쪽의 녹용생산



량이 감소하거나 기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각이 된 후 녹용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갑작스레 고단백 사료를 증량 급여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서히 늘려야 하고 단백질 급여를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비타민과 미량광물질(미네랄)의 급여를 동시에 증량시켜야 한다. 그러나 비타민과 미네랄을 갑자기 섞어 준다면 냄새로 말미암아 잘 먹지 아니하므로 물에 불린 콩 등에 버무려주면 효과적이다.

포피염은 포피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사슴의 뼈속에 잠복하여 있다가 호르몬변화가 있거나 혹은 면역력 감소, 겨울철 급수 관리부실 등에 의해 발생되며 한번 포피염이 발생하면 매년 재발되는게 보통이다.

포피염이 발생되면 그 정도에 따라 녹용생산량이 20~50% 감소되어 농가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포피염의 발생기전은 포피염 바이러스가 포피에 모이게 되면 오줌의 암모니아와 2차적으로 세균이 감염되어 발생된다. 감염된 사슴은 강한 통증으로 인해 식욕감퇴가 발발하고 치유와 발병이 반복되면서 포피구가 좁아져 때로는 완전 유착을 일으켜 배뇨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낙각전에 포피염이 발생된 것이 발견되면 치료시 항생제를 주사하고 포피염 발생 부위를 철저히 소독해 주는 것이 좋다. 니트로후라존과 같은 항생제를 뿌려주면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나 낙각 후에는 항생제 주사를 금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낙각후



항생제 주사는 흔히 녹용생산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포피염이 극심한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사용하면서 수술적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고온·홍분이 마취사고 직접 원인

사슴을 사육하면서 마취제의 사용은 필수적인데 100% 안전한 마취제는 아직까지 없다. 마취는 성별, 나이, 체중, 건강상태, 계절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마취전에는 흥분을 유발시키지 말고 절식해야 함이 원칙이며 마취 장소는 평탄한 곳이 좋다.

그러나 양육농가에서는 가끔 마취사고를 겪게 되는데 이는 흥분이 지나친 상태에서 마취제 용량을 과량 사용해서, 또는 너무 고온 다습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마취하거나 사슴이 외관상으로 건강해 보이나 실제로는 질병이 있는 상태 즉, 폐, 간, 신장, 심장에 질환이 있을 때는 정상적인 건강 상태의 마취 용량을 사용해도 사슴이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한 마취제에 해당되는 해독제를 즉시 주사하거나 산소탱크를 이용한 산소호흡 또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시킬 경우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다. 사슴사육농가는 마취제와 동시에 해독제, 산소호흡기나 인공호흡기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완전한 지혈도 각종 질환의 원인



지혈대란 출혈을 막기 위해 동여매는데 쓰이는 끈이나 천을 일컫는데 사슴에서는 통상적으로 녹용을 절단하고 채혈 후 지혈하기 위해 각좌와 녹용하단을 묶는 새끼줄이나 끈을 일컫는다.

지혈제로는 염화제2철이나 본왁스(Bone wax)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히 지혈이 안될 때는 흔히 새끼줄을 쓰게된다.

사슴의 지혈대는 너무 가늘지 않아야 하며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매주어야 한다. 지혈대를 너무 꼭 동여매거나 24시간 이내에 풀리지 아니하면 통증으로 말미암아 각좌를 철망이나 파이프에 문질러 대어서 각좌에 상처를 입거나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지혈대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상태로 꼭 조여져 있을 경우 전신마비를 수반하는 인후두마비증(혹자는 이를 파상풍이라고 함)으로 이환되어 치명적일 수 있다. 절각 후 지혈을 마친 후에 소량의 출혈은 방치해도 무방하다. 출혈을 완전히 하려고 너무 꼭 동여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안국양**